

# 함평해보중, 행복을 여는 맛있는 아침 식사 프로젝트 운영

### 학생들이 직접 요일별 메뉴 정하고, 학생들이 자원 봉사 북유럽 카페에 빵·김밥·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 준비

함평해보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특별한 아침으로 학교일과를 시작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학교 도서관인 북유럽(Book you love) 카페에 빵,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아침 식사 프로젝트 덕분이다.

이 아침 식사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요일별 메뉴를 정하고, 자원 봉사 학생 2~3명을 정해 음식을 배치한다. 또한 학교에서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우유와 요구르트도 배치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부드럽고 풍요로

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그냥 마시는게 아닌 아침 식사로 같이 먹으니 더 맛있다고 하였으며 원래 우유를 좋아하지 않거나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3학년 조장현 학생은 "바쁜 아침 탓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와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아침 식사를 하니 수업 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아 집중도 잘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는 학생들이 모두 모여 책상과 주변

을 정리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정리하니 시간도 단축되고 즐거운 청소 시간이 된다. 함평해보중학교 학생들의 성실함과 책임감 덕분에 북유럽 도서관 카페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성애 함평해보중학교장은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북유럽 도서관 카페에 다같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니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며 "학생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였다.

아침 식사 프로젝트 덕분에 학생들은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들과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지금처럼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아침 간편식을 먹으며 행복이 배가 되는 아침 시



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함평=김광춘 기자

## 고흥푸른꿈유치원, 고흥전통시장 체험학습



서로 도우며 함께 자라는 고흥푸른꿈유치원이 고흥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흥전통시장으로 체험 학습을 계획해 5월 25일 목요일 만5세반인 해오름, 온누리반이 고흥전통시장으로 장보기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아이들은 미리 적어놓은 장보기 목록을 보며 야채를 파는 곳으로 가서 당근, 오이, 고구마 등을 구매한 뒤 수산물 판매장으로 가서 고등어 등을 구입했다. 작은 손으로 각자의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집에 가서 부모님과 맛있게 먹을 거라는 말을 하며 웃음을 보였다.

장보기를 마친 아이들은 전통문화 공연으로 마술공연을 관람했다. 아이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지역민들이 모두 공연을 관람하고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교육나누리 회원들, 광양와우초에 교육도서 기증



광양와우초는 최근 광양교육나누리 회원들이 교육도서 1000여권을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열린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교육나누리 회원들은 신설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지난 3월에 2주간 교토봉사 활동을

학교로 직접 방문, 1000여권 전달

해 주었고, 이번엔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님과 회원들이 도서를 모아서 기증해 주셨다. 1-2층이 복층으로 이루어진 열린도서관이 학생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인기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학부모 독서도우미(대표 김은정)는 "광양교육나누리에서 관심을 갖고 도서를 기증해 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오고 학교에서 최고로 인기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 설렌다"면서 "학부모 독서도우미들도 학생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분 위기를 따뜻

함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였다.

교육나누리 심주란 대표는 "광양교육나누리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특히 "학습지원이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연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다.

광양지역에 봉사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케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광양=김현근 기자

## 해남교육청,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해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30일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학생들의 민주시민 및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생 전교학생회 임원 및 학교장 추천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추모식 및 사색지를 탐방하였다.



해남교육지원청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우리 고장 출신의 유공자 묘역을 찾아 개인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시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전일빌딩245를 방문하여 오

월지기의 설명을 들으며 1980년 뜨거웠던 광주의 민주화 열기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곡성유치원, 교육공동체가 하나되는 한마음 운동회 개최

유아·학부모·교직원 대상 실시

곡성유치원은 5월 30일 유아,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기초체력을 길러주고자 교육공동체가 하나되는 한마음 운동회를 열기로 하였다.

특히 운동회는 가족간의 사랑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과 학부모들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단합과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곡성 문화체육관에서 함께하는 교육과정운영으로, 교육공동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교육공동체가 하나되는 한마음 운동회

에서 유아와 가족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여할 것을 선서하고 활기차고 열린 응원과 함께 다양한 놀이마당에 참여했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뉜 유아와 가족들은 행복의 구름다리, 지구를 옮겨라, 태산을 넘어라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큰 호응을 보였으며 특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학부모님들의 이어달리기에서는 열띤 응원과 함성이 울려 퍼지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이번 행사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으며 특히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들을 하였다.



교직원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한마당 운동회를 통해 교육가족모두가 행복한 하루였으며, 교육공동체의 마음들도 이해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곡성=양해영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